제8차 OECD 공기업 작업반 아시아네트워크 개최



○ 일　　시 : 2015. 11. 16(월) ~17(화)
○ 장　　소 : 베트남 쉐라톤 하노이 호텔
○ 주　　최 : OECD
○ 후　　원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이틀간 기획재정부 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베트남개발전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체로 제8차 OECD 공기업 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이원희 소장, 박한준 경영평가 팀장을 비롯하여 베트남, 중국, 인도 등 20여개국 대표단 및 OECD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원희 소장은 "Good Practices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Asia" 주제로 진행된 4세션 사회를 맡았으며, 박한준 팀장은 한국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변천사 및 시스템에 관해 발표하였다.

OECD 공기업 작업반 회의는 공기업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경에 OECD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에서 개최되며 본 회의에는 한국, 스웨덴, 핀란드 등 OECD 회원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옵저버(Observer) 국가들을 포함하여 30여개 국가의 공기업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한다.

공기업 작업반은 기업지배구조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산하 특별 작업반이다. OECD는 분야별로 위원회와 작업반을 지원하는 행정국을 두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경우, 금융기업국(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산하 기업총괄반(Corporate Affairs Division) 산하에 위치한다. 즉, 금융기업국 산하 기업총괄반이 동위원회와 작업반의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아시아 네트워크는 공기업 작업반의 대륙별 네트워크 중 하나로서, 이번 제8차 아시아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 첫째, 중단되었던 아시아네트워크의 재개최이다.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의 아시아 국가 적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된 동 아시아 네트워크는 2006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매 해 추진되어 왔으나, 재정지원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이를 기획재정부가 재지원함으로써 제8차 회의가 성사되었으며 다시 한 번 아시아지역 공기업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2015년 공기업 가이드라인 개정판 이후 첫 회의라는 점이다.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기반하여 2005년에 발표되었던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end Enterprises)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2015년 10월 공기업 작업반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OECD 회원국들의 선진적 공기업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아시아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의 공공기관 정책에 관한 토론의 장이 다시 열리는데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기여했다는 점과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른 시간 이였다.



<알림>



얼마 전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0월 27~2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5차 OECD 공기업작업반 본회의에서 본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박한준 연구위원(경영평가팀장)이 동(同) 작업반 의장단 멤버로 선출 되었다. 공기업 작업반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을 비롯하여 총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박 연구위원은 의장단 멤버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 출신자이다. 의장단 멤버로 활동하는 박 연구위원은 향후 OECD 및 산하 지역네트워크 등 주요 회의에서 공기업 관리정책 국제표준정책 및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